

#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오수 해마다 줄어...수질개선 효과

송고시간 | 2021-11-09 16:05

오수유입지점 2019년 362곳→지난해 237곳→올해 206곳

오염원 차단해 창원시 2023년 '수영하는 마산만 목표'



경남 창원시 시가지와 창원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오수 유입 지점이 크게 줄면서 수질 개선 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경남 창원시가 9일 시청 시민홀에서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창원시 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보고회를 했다.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창원시 하천은 모두 40개다.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일반적으로 오수관을 타고 덕동물재생센터(덕동하수처리장)로 보내져 정화 과정을 거쳐 바다로 방류된다.

협의회는 그러나 오래된 주택 등과 연결된 40개 하천 206개 지점에서 오수가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조사(237곳), 2019년 조사(362곳), 2018년 조사(323곳)와 비교하면 오수 유입 지점이 크게 줄었다.

창원시는 회원천, 교방천, 하남천, 신이천, 자은천 등에서 오염원을 상당 부분 차단했다.

창원시 하수도 보급률은 2017년 기준 98.08%다.

대부분의 오수가 정화과정을 거쳐 바다로 방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길고 폭이 좁은 형태인 마산만 특성상 해수 순환이 잘되지 않아 육상, 하천에서 흘러드는 조그만 오염원도 마산만 수질을 악화시킨다.



창원 하천을 깨끗하게...수질정화식물 부레옥잠 던지기 행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시는 202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99.53%까지 올리는 방법으로 40개 하천 오염원을 대부분 차단한다.

마산만은 오염된 바다의 대명사다.

1970년대 이후 해안을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무분별한 매립, 인구증가로 수영은 물론, 물고기조차 살기 어려운 바다로 전락했다.

정부가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할 정도로 수질이 엉망이었다.

연안 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오염물질 총량을 강도 높게 억제하면서 마산만 수질은 매년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다.

최근 마산만에서 사라졌다 다시 서식이 확인된 갈피,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붉은발말뚝게 등은 마산만 수질개선을 뒷받침한다.

여기다 창원시는 2019년 10월 마산만을 수영이 가능할 정도로 맑은 바다로 되살리겠다고 '수영하는 해(海)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오·폐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마산만 목표 수질을 COD 기준 2018년 2.2mg/ℓ에서 2023년 수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 1.7mg/ℓ까지 낮춘다.



해맑은 마산만

[연합뉴스 자료사진]

---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09 16:05 송고

---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9048500052?input=1195m>